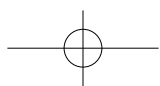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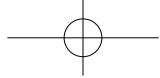
2026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1년 연속 1위
삼성서울병원

SMC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행복한 미래 의료의 중심 삼성서울병원

1994년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한국 의료계의 변화를 선도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 '미래 의료의 중심 SMC'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증 고난도 환자를 최고의 의료기술로 치료하여 최상의 치료 성과를 달성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삼성서울병원

올해 중증·고난도 질환 분야에서 국내외 '첫 기록'을 잇달아 썼다. 4월 8일에는 국내 최초로 궤도형 죽종절제술(OAS)에 성공했다. 궤도형 죽종절제술은 다이아몬드 코팅 기구가 타원을 그리며 회전해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석회화 병변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최신 치료법으로, 고령·당뇨·신기능 저하 환자에게서 흔한 중증 석회화 병변 치료의 선택지를 한층 넓혔다.

삼성서울병원 부정맥센터는 2025년 연간 시술 건수 2,000건을 돌파하며 센터 개설 이후 누적 2만례를 달성했다. 심방세동·심실빈맥 등 모든 부정맥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관으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성공률 77%는 국제 기준 65%를 상회한다.

로봇 기관지 내시경도 새롭게 도입해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존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광섬유 형상 센서로 카테터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며, 기존 검사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폐 말초 부위의 작은 결절까지 검사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한층 늘어났다.

글로벌 표준을 넘어, 삼성서울병원이 증명한 환자 중심 의료

올해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가 주관한 INFRAM (Infrastructure Adoption Model) 7단계를 재인증 획득을 통해 HIMSS 주요 성숙 모델 5관왕을 유지했다. INFRAM은 병원의 네트워크, 서버, 보안, 재해복구 등 IT 인프라 운영 수준을 0~7단계로 평가하는 모델로, 삼성서울병원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첨단 지능형 병원의 핵심 기반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이번에 유방암에서 아이썬(ICHOM) 1단계 인증을 받으며, 국내 최초로 아이썬 인증을 획득하였다. 아이썬은 환자 중심 가치 기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제시하는 비영리 기구다. 이번 인증으로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유방암 분야에서 환자자기평가결과와 관련 활동이 국제 표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되고 있음을 공인 받게 됐다. 또한 글로벌 시사 주간지 뉴스워크가 선정한 '월드 베스트 병원'에서 국내 1위·세계 26위에 올랐다. 병원은 이번 평가를 '환자 중심', '중증 고난도', '첨단 지능형 병원' 등을 추구하며, 다방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혁신'을 선도해 온 결과로 평가했다.

INTERVIEW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

삼성서울병원은 의료 서비스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 전체를 돌보는 종합적인 케어라고 생각하며, 모든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AI 기반 진료 등 첨단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접목하여 환자 경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모든 도전과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가 행복한 병원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약하며,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와 사회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